

2026. 01. 12 (월)

경제분석 Note - 미 12월 고용: 섀다운 여파 정상화

비농업 신규고용 5만건 증가, 실업률 4.4%로 하락, 11월 4.54%.

10~11월 정북 섀다운 여파 반영. 외국 데이터 정상화 중.

기업들이 노동 수요는 정전적 감소, 노동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no-hire, no-fire, 연공의 인하 기준 지속.

나 고용이 동결된 상황

→ 경기 안정, 인플레이션 위험 예방

글로벌 전략 Brief

금주 - 미국 물가. 소매 판매 지표 공개.

고용, 기대 인플레이션 등 지표 발표 이후 1,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S&P 500 기업 25년 4분기 매출, EPS 증가 예상.

중간 선거 앞두고 관세, 주력, 디지털 자산, 국방 강화 등 정책 브레이크.

주 간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위험 자산 투자 심리 일시 위축

IT/반도체 중심 매수세 지속.

After Market

트럼프 - 그린란드, 합의 안되면 강압적으로라도 확보

1월 1~10일 수출 15%씩 달러, 2.3% 감소. 일평균 4.7%↑

1인당 가계대출 9700만원 역대 최대

이란 시위 2000명 이상 사상자 가능성, 미 군사 옵션 검토.

연준의 금리 정책이 3월까지는 동결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시사할만한 정보로 보인다. 그 외에도 미국 중심의 섀다운 정상화, 지정학적 개입, 기술주 관련 이슈 등 시장 모멘텀이 미국 중심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가계 부채 같은 리스크와 글로벌 기회-방안, 반도체와 같은 기회가 공존 하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2026. 01. 13 (화)

재권분석: 연준 이국 KTB 수요 점검

외인 및 국내 기관 수요 재개, 국고 5~10년물 가격 매력 잔존

→ 국채 만기별 순매수에서 2년물과 30년물 매수 비중 확대.

1월 비중을 보면 외국인 3~10년물 비중 증가.

→ 비별 전략

→ 중기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거나 수익률 곡선이 개선되면서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신호.

자이나 Note

중국 기업 판매가진 인상과 수익성 확보는 수출보다 내수.

→ 내수 주문이 늘어나는 국면과 맞물려 수익 상승.

글로벌 경쟁력 / 기술 보유 대형기업들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 검증.

* PPI → CPI 시간소요.

→ CPI 보다 PPI에서 관측됨.

생산과 물가 지수

→ 앞선 단계의 가격 동향
→ 2차

After Market

중증 원유 공급 불안정성 증가

신규 대형 원유 2기 건설할까...? → 한수원 직기 부지 확보 추진.

트럼프 이란과 거대하면 대미 관세 25% 증가.

원달러 환율 1470 ↑ - 1472.1

이 대통령. 오늘 방일 더카워지 종로와 전상회향.

→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 전략으로 해석 가능.

→ 수입 의존도 높은 한국이 에너지(원유, LNG) 수입 비용 증가 의미.

분석 하면서 느낌점은 지표나 정보에 대해서 연관된 주체들이 근거지를 명확히 하고 보아야 수익이게 이득인지 이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행위의 근거가 존재하고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는다.

미국의 행동들로 인해서 한중, 한일 정상 회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환율 리스크나 중동 국가와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매한 대응을 알게 모르게 극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01.14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분석과 통계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 속에서 적절한 투자 기법을 활용하면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단편적인 반면 보고 투자하고 답어두는 행동은 높은 확률로 돈을 잃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 및 판단,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가 필요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리포트 분석 결과 다양한 증권 의견이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뉴스 기사나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정보도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재해석해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주체와 이해관계자 등 관계망과 투자 정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